

현대 패션에 나타나는 '봄과 보임'에 관한 연구

- Freud, Lacan, Merleau-Ponty의 시각을 중심으로 -

김 영 선* · 강 병 석**

홍익대학교 의상디자인 전공 박사과정* · 홍익대학교 섬유미술패션디자인과 교수**

A Study on "Viewing" and "Being Viewed" Found in Contemporary Fashion

- Focus on the Perspectives of Freud, Lacan, and Merleau-Ponty -

Yonson Kim* · Byoung-Suk Gaang**

Doctoral Course, Dept. of Fashion Design, Hongik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Textile Art & Fashion Design, Hongik University**

(2007. 12. 10 투고)

ABSTRACT

Methods of delivering products to consumers do not act as less important factor than creative activities to create new product designs. Mobilizing various psychological elements based on human instinct and desire, fashion industry presents a product as an object of envy, gaining viewers' attention. Here, the viewer does not simply take the product as an object to view, but also imagine transformation it will bring. The study of the cause and effects of the interaction, which is fou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iewer" and "what is viewed" is an important factor that needs to be identified in the phase of creation as well as in the aspect of deliver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iver and what is perceived features in designs, product advertisements, related articles, and fashion shows in modern fashion, serving as a medium that enables the humans, who must inevitably exist between the two poles such as mind and body, the subject and the object, the ego and non-ego, and the reality and an ideal, to communicate between the poles.

Humans cannot do arbitrary acts or make arbitrary selections only as they access to foreign things through instinct, desire, or experienced perception, and they are sometimes positioned passive by things. In the background, as there are human dual characteristics in which they are expressed as the ego and another ego who exists inside of the ego, they not only view an object, but also become an object to be viewed.

Many products in modern fashion, as the objects of reciprocal transposition, grow giving illusions to humans. Having a desire for such objects is human's instinct and normal act to keep the life balanced between the reality and an ideal, which is based on the activation of reality function. Furthermore, freely acting rather than ignoring or overcoming the desire may be the act of retrieving one's ownership to the ego.

Key words: instinct(본능), wish(욕망), perception(지각), duality(이중성), reciprocal transposition(상호환위)

I. 서론

'건물생심(見物生心)'이란 말은 물건을 보면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의미로, 두 행위가 내포되어 있다. 사물을 본다는 행위의 배후에는 주체가 그 사물을 시각으로 받아들여 지각한다는 의미와 그 사물에 대한 판단을 하는 행위가 연이어 작용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그리고 욕심이 생긴다는 것은 주체와 사물 사이에 관계가 설정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단계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물을 지각하고, 그것에 대한 욕심을 내며, 사람은 사물에 대하여 주체자로서 능동적인 위치를 갖는다. 그러면 이러한 관계는 항상성을 띄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실제로 생활 속에 드러나는 반대의 경우는 많다. 진귀한 가방이나 보석을 보고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발동되면 결국 가방이나 보석은 인간의 행위를 조정하는 주체로 전도되고, 또한 대상에 대한 중독이 일어나는 것도 같은 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두 행위의 주체를 인간으로 설정하고 대상을 객체인 사물로 보는 시각과는 상반된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내용은 첫째, 이러한 상반된 시각의 발단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코페르니쿠스(Nicolas Copernicus, 1473-1543)의 획기적인 '지동설'의 발견과 케플러(Johannes Kepler, 1571-1630)의 '타원궤도의 법칙'의 발견이, 동시대의 생활 및 사고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과 관점의 변화를 갖게 한 배경과, 이러한 사실들이 문화에 미친 영향을 역사 속의 실증적 사례들을 통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둘째, 역사 속에 축적된 이러한 관점의 변화에 의해 후대에 이어진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의 의식적인 자아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 라캉(Jacques Lacan, 1901-1981)의 '타자의식', 그리고 메를로 뽕띠(Maurice Merleau-Ponty, 1908-1961)의 '지각되어지는 자아' 등의 이론을 통하여 인간의 수동성과 능동성의 이중적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정신과 육체, 주체와 객체, 자아와 타아, 의식과 무의식, 현실과 이상 등의 이원적인 양극 점에 펼쳐있는 사이(間)에서 운명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인

간에게 양극 점을 소통하게 하는 매개체로서의 패션에 나타나는 '봄과 보임'의 유형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접근하려는 인간의 본능과 욕망, 그리고 지각은 시각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스스로의 발현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자취를 숨겨 위장하기도 하고, 증발해버리기도 하여 그 실체의 접근에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이론적 근간에 대한 실례는 인간이 탄생하면서 겪는 과정과 주변적 환경, 그로 인해 형성되는 것들과 변화 과정 또는 대체물을 통하여 설명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연구 범위는 코페르니쿠스의 획기적인 발견 이후 주체와 객체에 대한 논의를 담은 문헌을 중심으로 이론적 근간을 마련하였는데, 그에 대한 연구 대상은 프로이트의 '동일시(同一視)', 라캉의 '욕망이론', 메를로 뽕띠의 '지각의 현상학', 베르그손(Henri Bergson, 1859-1941)의 '동적 공감(sympathie mobile)'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프로이트의 무의식은 여러 병리적인 실험을 토대로 이뤄져 있고,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의 각기 다른 영역을 다루고 있어 시각적 발현의 실례에 대한 제약이 있는 이유로, 그리고 대상과 목표, 성욕(Sexuality)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로서의 리비도(Libido)는 개념자체가 단일한 정의를 내릴 수 없는 주제여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내용은, 인간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의 기저에서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요인들 중 패션에서 시각적으로 관련되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론적 근간에 대한 실증적 근거로써는 2000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패션 매거진에서 다루는 '봄과 보임'에 관한 교감의 시도나 상호 환위를 추구하는 형태 중에서, 패션 관련 광고와 기사, 사진작가들의 이미지, 패션쇼에서의 모델이미지를 중심으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봄과 보임'의 관계는 어느 특정한 한 분야나 정해진 시대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개입되는 것에는 다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현대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매거진에서 다루는 내용 가운데 개괄적인 유형의 사례만을 연구범위로 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자연현상과 문화: 지구의 타원궤도와 바로크 시대의 건축

코페르니쿠스는 1530년 「요약: Commentariolus」에서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주장하였고, 1543년 출간된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1525-1530」에서 지동설을 주장하며 춘분점과 추분점이 이동하는 세차현상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혁신적인 주장은 그 동안 믿어왔던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 350년경)의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주장과 프톨레마이오스(Prolemaios: 140년 경)의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고 모든 별들은 완전한 원운동을 한다.'는 천동설을 일순간에 뒤엎는 동시에, 태양 중심의 우주에서 인간은 하나의 대상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지동설이 발견되기 이전의 사람들이 생각한 우주는 신이 만든 창조물이기엔 완벽한 것이고, 그에 따라 지구는 완벽한 원운동을 한다고 믿었다. 그러한 근거로써 <그림 1>에서처럼 신의 영역을 원으로 표현하던 로마의 고전주의 건축에서는 돔의 형태가 완벽한 원형으로써, 원을 중심으로 우주의 질서와 땅의 조화가 이뤄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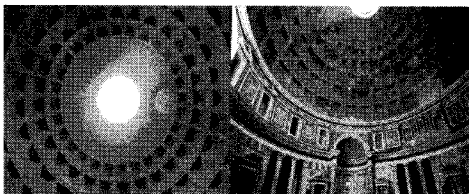
코페르니쿠스의 혁신적 발견을 토대로 케플러는 1606년 「신 천문학」에서 세 가지 법칙을 발표하였는데, 그 첫 번째가 '각 행성의 궤도는 태양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이라는 타원궤도의 법칙이다. 원은 그 중심이 하나이고 어느 한쪽으로의 치우침이 없는 무결점의 형태를 보이지만 타원은 중심이 둘 또는 그 이상이라는 점에서 심오한 의미를 갖는다. 원이 신과 관련

이 있다면 타원은 인간과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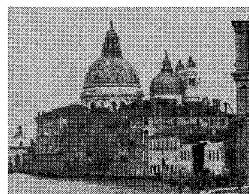
바로크(Baroque)의 어원은 포르투갈어의 Barroco에서 유래하여 모양이 일그러진 진주를 일컫는 말로, 17세기 중엽에서 18세기 초엽까지 고전주의(Classicism)와 병행되어 유럽에서 일어난 문예사조를 지칭한다.

코페르니쿠스의 발견과 케플러의 타원궤도의 발견 이후에 나타난 바로크 시대의 예술과 건축 양식에는 중심에 관한 시대적 사고가 깃들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처럼 성당의 중심부위인 돔을 이례적으로 한 건물의 두 곳에 건축하였거나, <그림 3>처럼 광장 형태를 중심의 오벨리스크와 2개의 분수에 의한 타원형으로, 또는 <그림 4>처럼 돔 내부를 타원형으로 만들었다. 시대를 혼들었던 코페르니쿠스의 시각과 사고의 전환은 당대와 바로크 시대는 물론, 근대에 이르기 까지 인간 정신과 사고와 관련하여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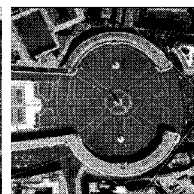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코페르니쿠스의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 우주를 보는 시각을 지구 중심에서 태양 중심으로 전환시켰기 때문인데, 이는 주체와 객체의 전환과 관련 있고, 자아와 타아를 생각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케플러의 타원궤도는 후에 프로이트에 의해서 중심이 둘 이상인 타원과 인간의 마음과 관련한 연구의 주제가 되었다. 이에 관한 프랑스 기호학자(Sémiologue) 쾨장(Michel Cusin)의 강해에 따르면 "인간은 타원처럼, 중심이 하나로 잡혀있는 것이 아니고 둘 또는 여럿이고, 중심에서 벗어나 있다. 사고(accident)에 의함이 아니고 구조적이고 근본적으로 중심에서 이탈되어 있으며, 인간의 중심 옆에는 항상 또 다른 중심이 있고, 인간은 자기의 허영(虛榮)과 같이 걸어간다."⁵⁾ 하였다. 이는 우주의 자연 현상과



<그림 1> Le Panthéon d'Hadrien¹⁾



<그림 2> Santa Maria della Salute²⁾



<그림 3> Piazza San Pietro³⁾



<그림 4> Coupole de la Chapelle Saint-André-au-Quirinal⁴⁾

연관된 인간의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또 다른 중심'은 서양에서 뿐만이 아니라 동양에서도 인식되어, 응용사상이 증시되는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인간의 특성

1) 이중성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적인 환경 변화와 함께 충격을 겪게 되고, 모체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상실감은 유아기에는 물론, 성인이 되어서도 영원히 극복되지 않으며, 인간은 현실에 거주하면서도 항상 과거를 그리워한다. 이러한 인간에 대하여 프롬(Erich Fromm, 1900-1980)은 "인간은 잃어버린 낙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분명히 알고 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두 가지 경향사이에서 찢어지는 고통을 겪는다. 그 하나는 빛을 향해 나아가려는 경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궁 속으로 퇴행하려는 경향이다. 하나는 모험을 추구하는 경향이고, 또 다른 하나는 확실성을 추구하는 경향이다. 하나는 독립의 모험을 무릅쓰려는 경향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보호와 의존을 추구하는 경향"⁶⁾이라며 이중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을 설명하였다.

행동의 주체로서 세상을 영위하려는 의지는 자주 벽에 부딪치게 되는데, 이때마다 인간은 갈림길에 서게 되고 자기와 대상(사물)에 대한 관계를 숙고하게 된다. 이에 관하여 프롬은 "인간은 절대적인 수동성을 견디지 못한다. 인간은 대상에 의해 변형되고, 변화되고 싶은 충동뿐 아니라, 세상에 자신의 자취를 남기고, 세상을 변형시키고, 변화시키고 싶은 충동을 갖고 있다"⁷⁾고 하였다.

여기에서 충동에 의한 행위의 주체는 욕망이고, 욕망은 이성뿐만 아니라 본능과도 연결되어있다. 인간의 기저에 위치하여 인간의 행위를 조정하는 본능과 욕망은 사회에서 쉽게 억압되는 듯하지만 "이성이 억압해온 감성은 제거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늘 다른 모습으로 돌아온다."⁸⁾ 그래서 인간은 이성과 본능사이의 주체가 되어 대상을 지각하고 판단하며, 몸은 그 사이를 잇는 매개체가 된다.

이러한 인간의 몸에 대하여 "우리의 몸이 대상으

로 구성되는데서 어떤 일이 이뤄지는가, 거기에는 객관세계가 발생하는데 작동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기 때문이다..... 몸은 객관세계로부터 자신으로 돌아옴으로써 자신을 자신의 주의환경과 연결시키는 지향적인 끈들(les fils intentionnels)을 끌어낼 것이고 중국에는 지각하는 주체를 지각되는 세계로서 드러낼 것이다."⁹⁾라고 하였다. 어떤 계기가 생기면 인간은 주위환경과 연결되어 주체가 되는 몸에서 보이는 대상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주체는 타인(대상)을 통하여 자기를 보게 되고, 보이는 대상이 되는 이중적 구조 속에 존재하게 되는데, 여기에 본능충동이 작용하면 욕망은 주체와 대상을 잇는 매개체가 된다.

2) 본능과 욕망

본능(Instinkt(독), Instinct(불, 영))은 전통적 의미에서 "개인에 따라 거의 변화가 없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거의 흔들리지 않고, 어떤 목적에 부응해서 이루어지는, 동물에게 고유한 유전적인 행동구조를 말한다."¹⁰⁾

프로이트는 본능을 "정신과 육체 사이의 경계선에 있는 개념으로, 신체기관 내에서 발생하여 정신에 도달하는 심리적 대표자"라 하였고, '성욕에 관한 세편의 에세이' 제3편(1915)에서 "본능은 몸속으로 끊임없이 흐르는 자극의 근원이 심리적으로 표현된 것으로서..... 본능의 개념은 정신과 육체 사이의 경계에 놓여 있는 것들 중의 하나이다."¹¹⁾라고 말하였다. 또한 "본능은 '순간적인' 충격을 주는 힘으로서가 아니라 늘 '지속적'인 충격을 주는 힘으로서 작용한다. 본능은 외부에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내부에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는 일은 불가능하다."¹²⁾라고 하였다.

존재하기 위하여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고, 고대의 건축에서 원으로 표현되었던 신과 대비하여 중심을 여럿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은 그렇게 명료한 이성의 존재만은 아니요, 억압된 동물적 본성은 틈틈이 의식을 뚫고 솟아오르는"¹³⁾ 상황을 맞게 되며, 그러한 현실 속에서 이상을 향해 상승하고 싶은 욕망은 인간이 선택하는 도피처인 동시에 새로운 에너지를 갖게 하는 기폭제로 작용한다.

욕망(Wunsch(독), désir(불), wish(영))은 프로이트가 가정한 최초의 경험 형태인 충족체험에 의거한다. “충족체험은 젓먹이에게 (필요에 의해 원하는) 욕구가 만들어 낸 긴장이 외부의 개입에 의해 진정되는 체험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때 충족을 주는 대상의 이미지는 주체(젓먹이)의 욕망의 구성에서 선택적인 가치를 갖는다. 그 것은 실제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재 투여되며, 나중에 충족을 주는 대상을 추구하는데 항상 길잡이가 되는 것”¹⁴⁾이다. 충족체험에 뒤이어, “.....어떤 지각의 기억 이미지가 욕구에서 생긴 흥분의 기억과 결합 된다. 그리고 그 욕구가 다시 생길 때, 이미 수립된 결합 덕분에 지각의 이미지에 심리에너지가 재 투여하고 그 지각을 불러일으키는, 다시 말해 최초의 충족 상황을 재현하려는 심리적 움직임이 일어난다. 그러한 움직임이 바로 우리가 욕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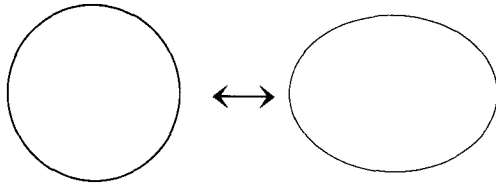
욕망은 항상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본능의 바탕위에 잠재하여 있다가 외부의 대상이나 자극에 의한 충족체험을 원할 때 발생된다고 할 수 있고, 충족의 실제 대상이 없는데도 작용을 한다. 라깡은 “부러움이란 그 본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즉 자신에게는 충족의 대상이 아닌 것을 타인이 소유할 때 느낀다.”¹⁶⁾라고 하였다. 타인이 소유한 것은 절대로 주체(관찰자)가 원하는 것과는 동일하지 않은 것이고, 실제 대상을 정확히 모르는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의 대체물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욕망이라는 것이 인간의 모든 것, 인간의 가장 깊은 비밀을 알고자 하는 것인 만큼 사고에만 의존하고 있는 일반 지식으로는 결코 달성될 수가 없다.”¹⁷⁾는 프로트의 말에서처럼 욕망은 주체로서의 인간을 형성함과 동시에, 타자의 끝없는 관찰자로서 살게 하여 주체의 정체성을 일순에 무너트리기도 하는 미지의 영역인 것이다. 태어나는 순간부터의 겪는 불안과 욕망은 언어습득이 이뤄지는 훨씬 전부터 울음을 통하여 표출되는데, 프로이트는 “이런 욕망들이 깨끗이 사라져버리지 않고 억압되어서 무의식으로 남아 의식에 영향을 준다고 말한다.”¹⁸⁾ 라깡은 “욕망의 본질은 바로 죽음의에는 아무것도 만족시킬 수 없는 ‘결핍(Lack)’이기 때문이다.”¹⁹⁾라는 주장을 하였다. 그래서 인간은 결

핍과 욕망,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주체와 객체로, 관찰자와 대상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며, “욕망은 만족을 위한 욕구도, 사랑에의 요구도 아닌, 요구에서 욕구를 뺀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며 동시에 양자분열의 현상 그 자체”²⁰⁾로 존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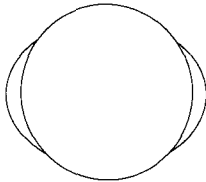
3) 지각

욕망이 대상이나 타인 같은 외부적 동인(動因)에 의해 형성된다면, 인간은 그 대상(사물, 타인)에 대한 시각적 인상을 어떻게 지각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드브레(Régis Debray, 1940-)는 “어떤 시각적 재현도 그 자체로서 또 그 자체에 의해서 효력을 띠지는 않으며, 효력원리는 광속선의 단순한 포착자인 인간의 눈 속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두뇌 속에서 찾아지는 것이다.”²¹⁾ 또한 메를로 뽕띠는 “어떤 형체를 지각하는 것은 상기하는 것이다.”라며 그에 관한 설명으로 무엇을 지각할 때 “평소와는 다른 인상들의 배치의 심적 요인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풍경사진이나 글씨를 거꾸로 했을 때 다르게 배치된 인상들에 의해 알아보거나 읽을 수 없게 된다. ‘그것은 지각을 완성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의 외관에 의하여 상기가 가능해 지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의 안경을 통해서’ 그 대상을 보는 셈이다. 헤링(Ewald Hering, 1834-1918)은 우리가 이미 아는 대상을 다시 보거나 ‘다시 본다고 믿을’ 때마다 그것이 되살아난다고 말한다.”²²⁾ 그래서 인간은 이미 두뇌 속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인지된 것만을 의식해서 보게 되며, 지각되지 않는 것은 인지 못하게 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지각은 결국 대상에 이르고, 대상은 한 번 구성되면 우리가 가졌거나 가질 수 있었던 모든 경험의 이유로서 나타난다.”²³⁾ 이렇게 지각은 경험과 관련이 있고, “의식이 접시의 둥근 외관으로부터 기하학적 원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의식이 이미 거기에 원을 놓았기 때문”²⁴⁾이며, 처음 접하여 낯선 것들도 의식에 지각된 유사한 것들의 경험 속에서 지각되는 것이다.

“지각(perception)은 흔히 의계에 대한 교섭 또는 열림이라고 규정된다. 그것은 감각적 차원을 포함하



<그림 5> 원에서 지각할 수 있는 형태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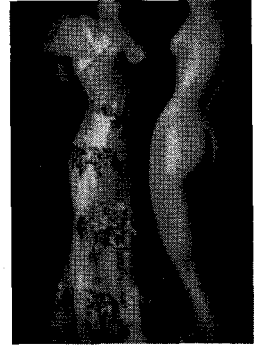
<그림 6> 두 대상이 겹쳐진 예

고 그렇게 해서 외계의 물성이 나에게 주어진다. 이러한 지각 개념은 감각적 내용 또는 성질과 대상을 상호 구별한다. 즉 지각은 감각적 내용에 의지해서 대상을 나에게 제시한다.”²⁵⁾ 따라서 지각에 의해 외부세계를 구별하게 되고, 유사성에 따라 물성을 분류하게 된다. “상기한다는 것은 과거의 지평 속으로 빠져 들어가 거기에 끼여져 있는 조망의 관점들(Les perspectives emboîtées)을 차근차근 전개하는 것이다. 조망적 관점이란 한 사물을 볼 때 지금 여기서 이런 각도로 보거나 아까 저기에서 저런 각도로 보거나 나중에 또 다른 지점에서 다른 각도로 보거나 할 때 생겨나는 각기 다른 시각의 방향을 말한다. 그럴 때마다 다른 내용의 경험들이 이루어진다.”²⁶⁾ 따라서 <그림 5>에서처럼 의식에 그려진 원을 예를 든다면, 지각된 원은 다른 시각에서는 원과 유사한 타원에 까지 미치게 된다. 그리고 <그림 6>처럼 두 형태가 겹쳐있거나 혼재되어 있을 경우 “내가 대상을 분명하게 보고자 할 때 망막구조의 우연성이 그 주의를 보지 않게 희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대상을 잘 보기 위해 주위를 잠재우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²⁷⁾ 그래서 의식은 분명하게 보고자 하는 대상만을 발체하게 되는 것이고, 인간은 그 대상과 자기와의 여러 다른 시각에서의 경험들을 교감하게 된다.

<그림 7>에서처럼 시각적 대상으로서의 몸은 관찰자의 시선을 통하여 의미가 발생하는데 메를로 뽀티는 “대상을 본다는 것은 시각적 장의 테두리에서 대



<그림 7> Chanel, précision Body Excellence 광고²⁸⁾



<그림 8> Christian Dior, Body Light의 광고²⁹⁾

상을 가지고 고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든지, 아니면 그것을 고정시킴으로써 그 유인에 응답하는 것이다.”³⁰⁾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관찰자는 위 예의 ‘원과 타원’처럼, 시각적 대상을 스스로의 경험을 통하여 지각하고, 지금 보이는 대상과 과거 속에서 지각된 적이 있는 자신의 몸과 함께 지각하며, 거기에서 상이 점이 있다면 관찰자는 ‘그때의 과거’를 지향하게 되고, 자기의 얼굴과 몸을 보이는 대상의 이미지와 비교하게 된다.

“보들레르는 ‘상상은 무한과 인척관계’라고 말했다. ‘상상이란 스스로 그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인간이 자신을 내맡길 무한한 것으로부터 그 힘을 얻는다는, 혹은 그 보다 더 나은 것을 찾지 못해 그 허약한 물질적인 무한성에만 자신을 맡길 도리밖에 없다.’³¹⁾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은 <그림 8>에서처럼 시각적으로 지각되는 물질적인 것을 자기의 몸과 견주어 상상하고 그곳에 부러움의 대상이 있다면, 본능충동과 욕망은 만족을 주는 새로운 대체물을 추구하게 된다.

Ⅲ. 주체와 객체

인간의 경험에 의한 지각은 하드리안(Hadrien) 성당의 돔 형태를 원으로, 바로크(Baroque) 시대의 돔과 광장을 타원으로 표현하였고, 우리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의 대상을 경험하며 거기에서의 상징적 의미를 찾고, ‘조망적 관점’의 변화를 통하여 주체와 대상의 지

각에 관한 관계, 본능과 욕망의 작용 등에 관한 새로운 사실들을 도출해 낸다. 그러나 융(Carl Gustav Jung, 1875-1961)이 말한 것처럼 “과학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인간이 감각의 결합을 부분적으로 보상할 수는 있지만 인간이 어떤 기계를 사용하든지, 결국 어떤 점에까지만 확실성의 한계에 도달하고 그 너머는 의식된 지각이 통과할 수 없는 것.”³²⁾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은 “그 대상이 던지는 그만큼만, 전적으로 어떤 사물과의 그런 관계에 존재한다는 그만큼만, 순수한 의미화 행위라는 그만큼만 지향적 대상을 지향”³³⁾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식할 수 있는 지각’의 범주 안에서 대상을 보는 주체와 보이는 대상으로서의 객체를 살펴보고, 그 배후에 작용하고 있는 요인과 과정, 그로 인한 현상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1. 프로이트의 ‘그거(Es)’³⁴⁾와 ‘동일시’

인간은 생활 속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대상에 대하여 지각하고 모든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능동적이라고 믿으며 살고 있다. 그러한 사고 속에서 경험하는 예기치 못하는 일이나 의도하지 않은 일을 겪을 때도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거나 그 원인에 관한 대체적인 이유를 만들어 추정할 뿐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치 않았던 상황에 빠지거나 결정을 하기도 한다. 주체로서의 존재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나를 움직이는 또 다른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또 다른 무엇’에 관하여 프로이트는 ‘그거’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1923년 ‘자아와 그거’에서 처음 도입하였는데, “심리장치에 대한 세 가지 심역중의 하나로 ‘그거’는 인격중에서 욕동(慾動)³⁵⁾의 중심”이다. “그것의 내용, 즉 욕동의 심리적 표현은 무의식적이고, 한편으로는 유전적이고 생래(生來)적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후천적으로 ‘억압’된 것이다.”³⁶⁾라며 심리적 에너지의 중요한 저장소라 보았다. ‘그거’는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며, 살면서도 끊임없이 작동하는 것으로, 에너지를 만들어 내지만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여기에서 ‘억압’은 자아의 인지(認知) 밖에서 트라우마(Trauma: 외부적 요인에 의한 마음의 타격)에 의해 발생하는 것인데, 유아기에는 물론 성인이 되어

서도 욕망에 대한 표출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계기에 겪은 것들이 의식의 표면 아래로 잠재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정신과 의사 그로데크(Georg Groddeck, 1866-1934)는 “나는 인간이 미지(Inconnu)에 의해, 즉 스스로가 행하는 것과 스스로에게 일어나는 것을 동시에 이끌어가는 놀랄만한 힘에 의해 살아 움직인다. ‘나는 살아있다.’는 말은 조건부로부터 옳다. 그것은 ‘인간은 그거에 의해 살아진다.’라는 기본원리의 편협하고 피상적인 부분만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³⁷⁾ 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프로이트가 도입한 그거(Es(독), cela(ça)(불), id(영))에 대하여 “니체(Nietzsche)는 …… 무인격적인 것, 말하자면 우리의 존재 속에 본성으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 표현했으며, 그로데크는 “……우리가 자아라고 부르는 것은 삶 속에서 완전히 수동적으로 움직인다. [……] 우리는 제어할 수 없는 미지의 어떤 힘에 의해 살아진다.”³⁸⁾라고 표현하였다. 따라서 인간은 ‘그거’에 의해 행동하고 본능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며, 외부적 대상 특히 욕망과 관련되어 만족되지 않은 상태에 놓이게 되면 ‘그거’는 능동체로서의 인간을 수동체로 만드는 요인이 된다.

프로이트는 자아(Ich(독), moi(불), ego(영))형성의 과정은 “동일시 기제(同一視 機制)”로 이루어진다고 보았고, 어린아이의 부모를 전지전능한 존재로 보는 까닭에 먼저 부모를 동일시하게 되며 성장함에 따라 대상을 다른 사람으로 옮겨간다.”³⁹⁾고 하였다. 동일시(identifizierung(독), identification(불, 영))는 “어떤 주체가 다른 사람의 모습이나 특성, 속성을 동화시켜,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그 사람을 모델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심리과정으로 인격은 일련의 동일시에 의해 구성되고 분화된다.”⁴⁰⁾

이 동일시는 이루어지는 방향에 따라, “주체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동일시하는 이질적인 감정(hétéro-pathique)의 구심적 동일시와, 주체가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동일감정(idiopathique)의 원심적 동일시”로 구분하고 있다. 프로이트는 여러 동일시가 공존할 수 있다며 “……동일시 현상은 심리적 인간의 복수성(複數性)을 허용하고 있다.”⁴¹⁾고 하였다. 따라서 인간은 여러 대상을 향해 ‘동일시’를

하며 닳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2. 라캉의 욕망과 타자의식

라캉은 프로이트의 무의식을 본질적으로 특징짓게 하는 'Condensation(압축, 응집)과 displacement(전이, 전치, 이동)'을 차용하여 욕망에 대한 변화를 설명하였는데 "사회에서 금지된 욕망은 의식의 고리가 약한 틈새를 밀고 들어와 꿈으로 나타나는데 두 단계를 거쳐 변형된다. 첫 단계는 내용이 압축된 어떤 것으로 바뀌고 그 것으로도 마음이 안 놓여 다시 인접된 어떤 것으로 바뀌는데 이것이 압축과 전치"42)라고 하였다. 그리고 "압축은 기표들의 포개짐(suprimposition)"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경험된 통시적인 사건들을, 어느 한 지점에서 공식적으로 떠오르게 하여 사건의 기표들을 포개져서 나타나게 한다. "전치는 의미작용의 방향전환(veering off)과 관계"가 있어 그러한 기표들은 현실 속에서 다르게 나타나거나 승화되기도 하는데, "욕망이 갖는 끝없는 결핍상태는 주체가 영위할 수 있는 행복을 만들어 내는 근본조건이다."43)라고 하였다. 베르그손은 이러한 욕망에 관하여 "모호한 욕망에서 깊은 열정으로의 발전을, 사람들은 하나의 욕망이 우리 의식에서 점점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욕망이 깊어질수록 대상이 각 단계마다 다른 색조로 우리의 심적 상태를 물들이고, 마지막으로 깊은 열정이 되면 그 동일한 대상이 더 이상 동일한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 우리의 생 자체가 생기를 얻고 마치 어린 시절을 새롭게 맞이한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44)고 하였다. 따라서 욕망을 갖는 것은 인간을 긍정적인 환경으로 이끄는 하나의 요인으로, 충족체험을 위한 심리적인 에너지가 되는 것이다.

욕망과 주체의 관계를 숙고한 라캉은 주체 형성의 시기를 유아기(6-18개월)로 보았으며, 이 시기의 아이는 "자신의 몸을 가눌 수는 없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이미지를 총체적이고도 완전한 것으로 가정한다. 이 형태는 정신분석 용어로 '이상적 자아(ideal-I)'라 불리는데 타자에 의해 보임을 모르는 객관화되기 전의 '나'에 해당된다."45) 이 단계를 '거울단계(Mirror stage)' 또는 '상상계(the imagery)'라고도 하는데, 유

아기의 아이는 자라면서 거울(또는 어머니의 동공에 비친 모습)을 통하여 자기의 이미지를 확인하고 추상적인 자기의 이름과 이미지의 연결을 시도한다. 그러나 "거울에 비친 모습이 이미지에 불과하다는 것과 자신의 이미지가 타인과 다르다는 사실도 깨닫는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허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사고가 시작되고 유아는 다음 단계인 상징계(the symbolic)로 이동"46)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봄과 보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말하는 '나'는 바라보는 주체요, 말해진 '나'는 바라봄을 당하는 주체"이며 "바라보기만 하는 '나'뿐만 아니라 보임을 당하는 '나'도 있다는 주체의 객관화"47)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시각은 보기만 하는 '시선(eye)'이 아니라 '보임(gaze)'이 함께하는 중첩적인 것이다."라며 '보임'을 강조하는 것이 라캉의 욕망하는 주체이다. 여기에서 '보임'은 "대상을 허구화시키는 욕망의 동인"으로 작용한다.

"세계 속에서 인간은 보여지는 존재이다. 우리는 무대 위에 올려진 배우들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행동한다. 그러나 세계는 모든 것을 보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를 보기만 하는 존재라고 착각한다."48) 그러다가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 보여짐을 알 때 당황과 수치심을 느끼는데 자신이 세상에 의해 보여짐을 의식할 때 주체는 분리되고 인간은 고립과 소외를 벗어나 무대 위에 서게 되는데 이것이 라캉의 타자의식이다."49)

3. 메를로 뽕띠의 '지각하는 주체와 지각되는 세계'

인간 마음의 영역에서 존재하여 미지의 힘에 의해 움직이는 프로이트의 또 다른 '나', 그리고 욕망의 동인으로서 '보임'에 의해 분리되는 라캉의 '타자(the other)'와는 다르게 메를로 뽕띠는 대상(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지각되는 '봄과 보임'에 의한 '상호환위'를 통하여 발생하는 '나(moi)'와 '의명적 존재'로서의 '나'에 주목하였다.

메를로 뽕띠는 '이중감각'을 통하여 나와 대상에 대한 심리적인 관계를 설명하였다. "내가 나의 왼손으로 오른 손을 만질 때 대상인 오른 손도 역시 감

각한다는 이상한 속성을 가진다..... 한 기능에서 다른 기능으로 이행함에 있어 내가 만져지는 손을 즉시 만지고 있을 그 손과 동일자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⁵⁰⁾이다. 이 논리는 촉각뿐만이 아니라 시각과 지각에서도 나타나는데, 메를로 뽕띠는 '지각하는 주체가 지각되는 세계'라는 탈 이분법적인 주장을 통하여 "보는 자는 그가 보고 있는 것에서 포착되기 때문에 그가 보는 것은 바로 그자신이다. 즉 모든 봄에는 근본적으로 나르시시즘이 있다."고 하였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보는 자는 그가 수행하는 봄을 사물들을 대리하여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행하는 것이고, 흔히 화가들이 말하듯이 나는 내가 사물들에 의해 주시되고 있음을 느끼는 것이며 나의 능동성(activité)은 수동성(passivité)과 동일한 것이다."⁵¹⁾라고 하였다. 이러한 감각은 모체와의 합일에서 분리되어 상징계(the symbolic)에 있는 유아기에서부터 생성되며, 나르시시즘(narcissism) 정신세계와 관련이 있다. 보는 사람은 보이는 것에 자기의 마음 상태를 "투사(投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신적 안정과 심리적 보상을 추구하며, 그 동안 억압되었던 감정으로부터 탈피를 잠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이는 대상(사물)은 일종의 "치환기계(置換機制)"⁵²⁾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메를로 뽕띠는 '봄과 보임'의 주체와 객체로서의 인간 스스로에 대한 환위과정을 설명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거주하고 있는 내 몸을 보듯이, 사람들(self)들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몸(물체)의 윤곽을 바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몸(물체)에 의해 보인다는 것, 그 몸(물체)속에서 존재한다는 것, 그 몸(물체)으로 이주한다는 것, 그 몸(물체)의 환영(le fantôme)에 의해 유혹되고 매혹되어 자신을 양도한다는 것, 그럼으로써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서로 환위된다는 것, 따라서 어느 것이 보는 자이고 어느 것이 보이는자인지를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아 자신(Moi-même)으로부터 태어나는 '익명적 존재(Cet anonymat)'가 있다"⁵³⁾는 것이다. 이 존재는 프로이트의 '그거'에 의해 '나'로부터 분화되는 '미지의 나', 그리고 라캉의 '보임'에 의해 분리되는 '타

자(the other)'와 함께 주체로서의 인간을 객체로 존재하게 하는 영향을 미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메를로 뽕띠는 자기 자신의 내부에서 뿐만이 아니라 대상이나 사물과의 관계에서도 환위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 내가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이 나를 이용해서 자신을 본다. 그럼으로써 존재영역으로 볼 때 보는 자가 보이는 것들, 즉 가시적인 것들의 영역으로 편입되게 된다. 보는 자가 곧 보이는 것이고, 보이는 것이 곧 보는 자라는 봄과 보임의 상호환위가 일어난다."⁵⁴⁾는 것이다. <그림 9>는 한 여성의 옷차림이 흑백의 두 착장 사이에서 상호환위가 일어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광고 이미지인데, 이러한 실례에서처럼 정신세계에서의 환위가 시각적인 대상을 통하여 이뤄지는 사실을 인간은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9> Marithé François Girbaud의 광고⁵⁵⁾

IV. 현대 패션에 나타나는 '봄과 보임'의 유형

지금의 자기보다 더 나은 스스로를 표현하려는 새로운 시도는 과거의 어느 때도 존재하였고, 각 시대는 새로움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지식의 산물을 후대에 남겨놓았다. 인간은 "현실기능(Fonction du réel)"⁵⁶⁾에 의해 그러한 산물을 구별해내며, 과거의 것보다는 미지의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드브레는 "현재에는 새로워도 계속 새로운 것으로 머무르는 어려울 것이다. 그것들은 이제 감정적 가치가 없다면 자료의 가치에 불과하다. 자기 시대에 대해서만 말하는, 그러나 다른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다."⁵⁷⁾라며 인간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과거에 비해 다양하고 선택의 폭이 넓은 새로움이 홍수를 이룰지라도 인간은 프로이트가

말한 '그거'에 의한 '미지의 나', 또는 '타자'가 만족하지 않는 한 그리고 대상과 '상호환위'가 일어나는 한 인간은 영원히 다른 새로운 것을 찾게 될 것이다.

현대패션에서 '봄과 보임'에 관한 시도는 인간의 본능과 욕망을 상업성 목적과 결부시켜, 다른 자아에로의 탈피를 부추기며, 과거의 은유적인 방법보다는 관찰자에게 직접적인 설득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인간은 위에서 살펴본 정신적 내용의 '그거'에 의한 '미지의 나', '타자', '환위의 대상으로서의 나'에 의해 현대의 패션을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깊은 숙고(Réflexion approfondie)에 의해 다른 자아에 도달할 것이다. 그런 숙고는 우리의 내적인 상태들이 끊임없이 형성 도중에 살아있는 존재자로서 파악하게 한다."⁵⁸⁾

베르그손은 다른 자아로 도달하기 위한 인간의 본성적이며 운명적이기도 한 환위의 생성에 대하여 "우리 의식의 상태들에 관한 것일 때, 그것들이 외부 사물의 상호 외재성에 참여하게 되는 그 환상을 유지하는 것이 전적으로 이롭다."⁵⁹⁾고 하였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사회적 삶의 흐름에 들어가게 해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관찰자로서 현대 패션의 대상(사물)에 마음을 두는 것은 삶의 요인이며, 인간으로서의 존재가 되는 것을 지속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시간보다는 공간 속에서 전개된다.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라기보다는 외부세계를 향해 산다..... 우리는 스스로 행동하기보다는 '작용 받는다.' 그래서 자유롭게 행동한다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소유를 되찾는 것이며 순수한 지속에 다시 자리 잡는 것이다."⁶⁰⁾ 라며 우리가 살아야 할 자세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을 들었다. 패션의 유혹을 포함하여, 여러 목적으로 환위가 유도되는 환경 속에서 인간은 당연히 작용 받게 되는데, 그 속에서 자유롭게 행동하기란, 그것을 무시하고 초월하는 것이 아니다. 상호 외재성에 참여하여 환상도 갖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이 삶의 흐름에 존재하는 것이 된다. 현대패션은 이러한 상호 외재성의 대상으로서 존재하게 되고 환상을 주는 매개체로 작용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현대패션에서의 '봄과 보임'에서 환위를 유도하는 여덟 가지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1. 관찰자와의 직접적인 대면 형태

현대패션에 있어서 가장 빈번히 접할 수 있는 형태로써 관찰자와 대상과의 직접적인 대면형태를 이룬다. 일상 속에서 접했던 여러 형상 속에서 발췌되어, 단 하나의 이미지로서 우연히 관찰자와 대면되었을 때, 그 이미지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시선이 머물러 동시에 지각하게 하고 주변의 공간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이미지 이외의 것을 희미하게 만든다. 그것은 현재의 관찰자를 과거와 미래로 이동하게 하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바라본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정리하고 경험을 조직하는 것이다. 이미지는 시선으로부터 의미를 끌어내게 하는 것."⁶¹⁾이라 하였다. 관찰자는 <그림 10>의 여성 이미지와 '숨틸처럼 매끈하게 노출을 즐기자'라는 문구나 <그림 11>의 여성처럼 눈에 띄는 대상을 처음 접했을 때 관찰자는 거기에 있는 대상을 통하여, 자기에서 있었으면 했던(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스스로를 대상과 비교하며 일치해보려는 경험을 하게 된다. 따라서 관찰자(주체)는 이미지의 대상을 모델로 삼아 일련의 '동일시'를 하며, 보이는 대상으로서의 관찰자가 되는 환위가 일어나는 것이다.

2. 거울 반사(反射)의 형태

인간은 자기의 모습을 실제의 것보다 과거 경험 속의 이상적인 형태로 기억하는 습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거울에 다르게 비춰지거나 타인에게 다르게 인식되었을 때, 또는 사진에 나온 모습이 자기가 생각하던 그 모습이 아니면 이를 수정하거나 지우려든다. 거울은 대상을 실제 형태로 비추지만, 그 이미지를 보는 주체(인간)는 주관적으로 해석을 한다. 예를 들어 <그림 12>의 화장품 관련 이미지에서 여성이 거울을 보면서 거울 속의 자신을 '긍정이나 부정'으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기억과 관련이 있다. 전자의 경우, 인간의 "지적기억(mémoire intellectuelle: 자발적 또는 유의적 기억)"은 자발적으로 또는 의지적으로 기억을 행하게 하는데, "오성(悟性)의 기능에 제약을 받으며 기억의 대상이 되는 과거의 현실과는 다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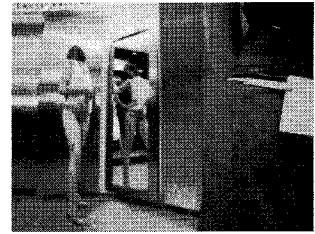
〈그림 10〉 Nair Pretty 크림 광고 이미지⁶²⁾



〈그림 11〉 Guerlain, KissKiss 립 크로스 광고 이미지⁶³⁾



〈그림 12〉 화장품 관련 이미지⁶⁴⁾



〈그림 13〉 Louis Vuitton 광고 이미지⁶⁵⁾

또는 무관하게 재구성하여 주체에게 제공”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무의지적 기억, 비자발적 기억”에 의하여 “현재의 감각과 과거의 감각과의 우연적인 공명작용에 의해서 순전히 비자발적으로 혹은 무의지적으로 사람을 과거로 되돌리고 그에 따라 사물의 초시간적 본질”⁶⁶⁾을 주체에게 제시하는 형태이다. 〈그림 13〉의 패션광고 이미지는 거울에 비치는 대상으로서의 주체에게 새로운 사물(허리에 매는 가방과 스커트)의 경험을 상상하게 하여 인간의 ‘지적기억’을 재구성하게 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3. 타성(他性)을 대상으로 하는 형태

〈그림 14〉는 전라(全裸)의 남성 석고상이 밑에서 여성을 바라보고 있고 〈그림 15〉는 여성 속옷매장의 진열장을 남성이 바라보고 있다. 이 이미지를 보는 여성은 옷을 입는 주체이면서 남성에 의해 보이는 대상이기도 하다. 물론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경우도 성립하기도 하는데, 타성(他性)은 ‘봄과 보임’에 있어서 주체이며 객체이다. 타성에 관한 “현전(présence)기능”은 “눈앞에 있는 대상을 지각할 때 현재는 현상하지 않지만 그 지각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을 동시에 함께 지각하거나 파악”하게 하며 “상상적이거나 환상적인 것은 아니고, 지각에 기초해서 일어나는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작용”⁶⁷⁾을 의미하기에, 현대패션에 나타나는 많은 타성과 관련된 이미지의 형태는 타성과의 잠재적 상태를 내포하고 있는 ‘봄과 보임’의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된다.

4. 반전(反轉)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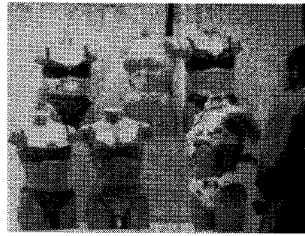
〈그림 16〉은 전라(全裸)의 발레리나가 카메라를 통하여 대상을 보고 있는 장면인데, 이 여성이 카메라 렌즈를 통하여 대상을 보는지, 아니면 관찰자가 이 여성을 보고 있는지를 질문하게 하는 이미지이다. 〈그림 17〉은 멀리보기 위해 망원경을 눈에 대고 있는 신사들 사이에서 새로운 상품을 착용한 여성들이 있는 패션광고의 이미지이다. 앞을 보는 여성과 망원경을 보고 있는 신사들이 대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병치되어, 이 이미지를 보는 관찰자는 신사에 의해 보이는 대상이 되면서 시선은 여성의 옷을 향하게 하는, 누가 보는 주체이고, 누가 보이는 대상인지를 알 수 없게 하는 반전의 형태를 하고 있다. 곧 ‘보는 자는 그가 보고 있는 것에서 포착되고, 그가 보는 것은 바로 그 자신’이 되는 형태이다.

5. 동물을 매개체로 하는 형태

동물이 ‘봄과 보임’의 매개체로서 관찰자와 대상자와의 관계를 잇는 형태는 동물과의 경험에 의한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동물이 갖고 있는 인간들과는 다른 특성을 인간이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림 18〉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교감하는 여성과, 〈그림 19〉 여행복 차림으로 큰 가방을 끌고 까치를 바라보는 여성은 그러한 부류의 동물과의 경험이 있는 경우는 물론, 없는 관찰자에게도 대상을 보게 만든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태어나는 ‘의명적 존재’는 이미지 속의 대상자를 생각하며 대리체험의 경험을 하게 하고, 이미지 밖의 관찰자 위치에서 이미지 안의



〈그림 14〉 emanuel ungaro 광고 이미지⁶⁸⁾



〈그림 15〉 Anne Boulay의 Lingerie 기사관련 이미지⁶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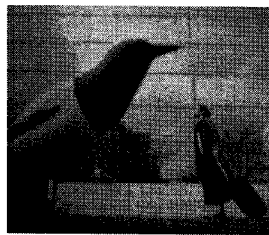
〈그림 16〉 Sylvie Guillem, Royal Ballet of London의 prima donna⁷⁰⁾



〈그림 17〉 Phil Poynter 사진작가의 이미지⁷¹⁾



〈그림 18〉 Gerbe Paris, Collant 광고 이미지⁷²⁾



〈그림 19〉 Mandarinina Duck 광고 이미지⁷³⁾



〈그림 20〉 노출과 수영복 관련 기사 및 이미지⁷⁴⁾



〈그림 21〉 성형관련 기사 및 관련 이미지⁷⁵⁾

대상자로 환위하게 하는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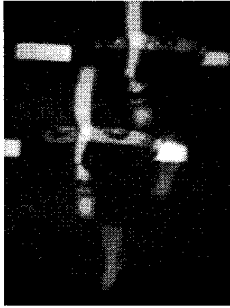
6. 언어에 의한 형태

〈그림 20〉의 기사는 '남자들은 어디를 볼까?'라는 제목 하에 여름에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의 노출과 관련하여 '수영복을 입은 여자의 신체 중 가장 눈이 많이 가는 곳은 어느 부위인가?'라는 질문의 통계자료(가슴 57%, 다리 17%, 얼굴 13%, 엉덩이 5%, 배 3% 등)와 '수영을 마치고 몸과 머리카락의 물기를 타월로 닦고 있을 때가 가장 섹시하다'는 남자들의 평(48%)을 언급하며 수영장에서는 수영모를 벗어던지고 젖은 머리로 있으라는 조언까지 실었고 〈그림 21〉은 '성형하면 어때?'라는 제목 하에 가슴 성형에 대한 기사와 현대 젊은 여성의 성형에 관한 통계자료를 실었다. '봄과 보임'은 언어에서도 예외가 아니게 나타나며, 환상이 아닌 통계로 지각될 때, 관찰자는 대상자로서의 환위를 생각하게 된다. "신체적 공감은 정신적 공감을 암시하고 그것들이 합쳐져서 '동적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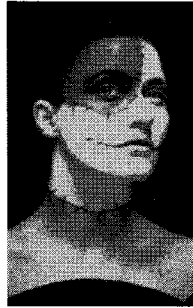
감(sympathie mobile)으로 발전"⁷⁶⁾하게 하는 것이다.

7. 분장(扮裝)을 통한 형태

예술은 일상에서 접하거나 지각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다. 예술로서의 분장은 '봄과 보임'의 형태에 있어서 일상적인 모습의 세계를 파괴하고 다른 세계를 제시하며, 기억의 너머에 있는 심연의 또 다른 '나'를 자극한다. 〈그림 22〉는 사진작가 블루멘펠트(Blumenfeld)의 작품으로 십자 형태의 분장을 하여 빛과 대비를 시켜, 낮선 조화를 통하여 보는 나와 보이는 나를 표현하고 있고, 〈그림 23〉은 면의 분할과 비 실제적인 색상의 대입으로 얼굴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탈실재화를 시도하고 있는 아비뇽(Avignon)의 뷰티 관련 전시 포스터이다. 이는 닳기의 대상으로서의 모델이 아니라, 현실을 벗어나게 하거나 겪어보지 못한 세계와의 정신적인 공감을 불러 일으키는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림 22〉 Erwin Blumenfeld 사진작가 이미지⁷⁷⁾ (1948 촬영)



〈그림 23〉 Topolino. "Décor à corps" Avignon Beauty Exposition 이미지⁷⁸⁾



〈그림 24〉 조선일보 사진 르포⁷⁹⁾



〈그림 25〉 Christian Dior. 07/08 F/W⁸⁰⁾

8. 패션쇼의 모델을 통한 형태

패션쇼에서의 '봄과 보임'의 공감은 역동적이다. 무대라는 특별한 공간이 주는 느낌에서부터 모델에게만 집중되는 조명과 걸음을 박진감 있게 옮기도록 도와주는 음악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 환경 속의 관찰자는 새로운 세계에 몰입하게 된다. 생생한 몸의 놀림에 따라 흐르는 듯 미끄러지는 옷의 형태 속에서 윤각을 드러내는 모델들의 몸의 선들과 그 위를 장식하고 있는 옷들은 하나의 사물(대상)에서 관찰자를 미지의 나, 또는 다른 자아를 만나게 하는 통로이기도 하다. 패션쇼의 어둠 속에서 이러한 대상들을 보게 되는 관찰자는 욕망의 대상으로 환위된다. 〈그림 24〉는 2007년 SFAA 컬렉션의 패션모델 지망생을 대상으로 하는 오디션에서 '나를 향한 시선이 좋아 모델에 지망한다.'라는 인터뷰 내용과 함께 실린 기사와 관련된 이미지이고, 〈그림 25〉는 Dior의 패션쇼의 모델이 여왕 차림의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서있는 이미지이다. 모델은 관찰자의 시선을 받는 '보임'의 대상이기를 바란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인간으로서 주체는 분리되고 마는 '타자(the other)'로서의 존재가 되는 것이다. 관찰자는 대상을 자기와 동일시하며 그 위치에 있기를 바라게 되는 형태이다.

V. 결론

주체(관찰자)로서 대상을 본다는 것은 객체(대상

자)의 시각에서는 보인다는 의미를 갖는다.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대상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지각하고 모든 결정을 하는 능동적인 주체이면서, 그와 상반된 대상이 되어 외계의 영향을 받는 수동체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시각의 발단에는 코페르니쿠스의 발견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고, 그로 인한 관점의 변화는 우주의 자연 현상과 연관된 인간의 특성을 연구하게 하는 기폭제로 작용을 하여, 건축을 비롯한 문화와 철학 등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본 연구를 통하여, 주체와 객체, 자아와 타아의 관계에서, 능동체이며 수동체로서 운명적으로 두 양극 사이에 존재하여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그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지각, 본능, 욕망과 관련한 정신적인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간은 시각적 대상을 스스로의 경험을 통하여 지각하는데, 처음 접하여 낯선 시각적 대상도 의식에 지각된 유사한 것들의 경험 속에서 지각한다. 본능은 인간의 정신과 육체 사이의 경계선에 있는 개념으로 신체기관 내에서 발생하여, 정신에 도달하는 심리적 요소로서 지속적인 충격을 주는데, 신체내부에서 작용하는 것이어서 본능의 작용을 피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외부의 자극이나 대상에 의해 실제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충족체험을 바라며 발생하는 욕망은 결핍으로부터 기인하고 영원히 충족되지 않는 채 현실과 이상을 잇는 매개체로서 존재한다.

인간은 이러한 기능을 간직한 채, 앞에서 살펴본

'그거에 의한 미지의 나', '타자', '환위의 대상으로서의 익명적 존재'로서 외계의 영향을 받으며 현대의 패션을 바라보게 된다.

패션을 매개체로 하여 생성되는 '봄과 보임'의 관계에는 나르시시즘 정신세계와 관련이 있어 보는 사람은 보이는 것에 자기의 마음 상태를 '투사(投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신적 안정과 심리적 보상을 추구하고, 패션은 이러한 심리에 상응하면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과거에 비해 다양하고 선택의 폭이 넓은 새로움의 홍수 속에서 현대패션은 '상호환위'의 대상으로서 존재하고 환상을 주는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다. '나와 내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나'로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이중적인 특성과 그것을 바탕으로 발전하는 현대 패션에서 나타나는 '봄과 보임'의 유형에 관하여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봄과 보임의 실제적 유형은 관찰자와의 직접적인 대면 형태, 거울 반사(反射)의 형태, 타성(他性)을 대상으로 하는 형태, 반전(反轉)의 형태, 동물을 매개체로 하는 형태, 언어에 의한 형태, 분장(扮裝)을 통한 형태, 패션쇼의 모델을 통한 형태 등 여덟 가지로 분류되었다.

둘째, 현대패션에서 '봄과 보임'에 관한 시도는 인간의 본능과 욕망을 상업의 목적과 결부시켜, 다른 자아에로의 탈피를 부추기며, 과거의 은유적인 표현보다는 직설적인 방법으로 관찰자에게 환상을 주고 있다.

셋째, 인간이 생활하면서 다른 새로운 것에 대한 환상을 유지하는 것은 삶의 요인이 되며, 사회적 삶의 흐름에 들어가게 해주는 것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재가 되는 것을 지속하게 하는 것이다.

넷째, 상호환위의 대상과 환상을 주는 매개체로 존재하는 현대패션에 대한 욕망을 갖는 것은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균형을 잡으려는 인간의 본능적이고, '현실기능' 작용에 의한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이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욕망을 무시하거나,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이 스스로에 대한 소유를 되찾는 일이 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봄과 보임'에 관한 인간의 이중적인 구조에 패션이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현대 패션의 체계에서는 새로운 상품의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창작행위 못지않게 상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모델이나 화려한 공간을 동원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과 소유욕을 불러일으켜야 상품으로써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이다. 패션 매거진의 광고사진, 기사, 선망의 봄을 갖고 있는 패션쇼의 모델, 길거리 등에서 '보는 자'를 위한 '보이는 자'의 차림은 무의식적인 본능과 욕망을 자극한다. 이러한 관계를 '지각하는 주체와 지각되는 세계'의 관점으로 살펴봄으로써 패션의 역할과 디자인의 목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상품을 디자인할 때나 상품전달의 커뮤니케이션 방법 모색에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현대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매거진에서 다루는 내용 가운데 개괄적인 유형의 사례만을 철학적인 관점으로 다룬 제한점을 갖는다. 따라서 지각과 관련한 뇌의 기능과 물리과학에 근거하여 실증적인 실험이 병행되는 패션의 역할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Rome (118-128). *Wikipédia*. fr. Panthéon de Rome
- 2) Baldassare Longhena. Venise. 1630 /bluffon.edu
- 3) Le Bernin(Gian Lorenzo Bernini). 1656-1657 /insecula.com
- 4) Le Bernin (1598-1680). Rome, 1658-1678 Histoire de l'art, Jean-François Favre, Hachette Education, 1995, p. 152.
- 5) Michel Cusin (2006). 프랑스 기호학자 (Sémiologue). Université Lumière Lyon II 교수. 2006. 11. 17 강해.
- 6) Erich Fromm (1956). *The Art of Loving*. 사랑의 기술 (1956), 인간의 마음 (1964). 백문영 역(1999). 해원출판사, p. 224.
- 7) *ibid.*, p. 146.
- 8) 권택영 (1998). 프로이트의 성과 권력. 문예출판사. p. 29.
- 9) 조광제 (2004). 몸의 세계, 세계의 몸. (Merleau-Ponty, *Le visible et l'invisible: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 Gallimard 1964, p. 86 재인용), 이학사, p. 74.
- 10) Jean Laplanche et Jean-Bertrand Pontails (1967). *Vocabulaire de la Psychanalys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정신분석 사전. 임진수 역. 열린책들. p. 167
- 11) Sigmund Freud (1997). 프로이트 전집, 13. 무의식에

- 관하여. 윤희기 역. 열린책들, p. 94.
- 12) *ibid.*, p. 104.
- 13) 권택영 (1998). 앞의 책, p. 31.
- 14) Jean Laplanche et Jean-Bertrand Pontails (1967). *op. cit.*, p. 464.
- 15) *ibid.*, pp. 283-284.
- 16) Jacques Lacan (1958-1959) (1994). 욕망이론. 민승기의 번역. 문예출판사, p. 35.
- 17) Erich Fromm (1956). *op. cit.*, p. 34.
- 18) Jacques Lacan (1958-1959). *op. cit.*, p. 13.
- 19) 권택영 (1998). 앞의 책, p. 31.
- 20) Jacques Lacan (1958-1959). *op. cit.*, p. 267.
- 21) Régis Debray (1992). *Vie et mort de l'image*, Edition Gallimard, 이미지의 삶과 죽음. 정진국 역, 시카고 언어, p. 130.
- 22) Maurice Merleau-Ponty (1945). *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 Edition Gallimard. 류의근 역 (2002). 지각의 현상학. 문학과 지성사, pp. 60-61.
- 23) *ibid.*, p. 123.
- 24) *ibid.*, p. 71.
- 25) *ibid.*, p. 693.
- 26) 조광제 (2004). 앞의 책, p. 27.
- 27) Maurice Merleau-Ponty (1945). *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 *op. cit.*, p. 124.
- 28) an. an. 2007. 05, N.87, p. 5.
- 29) Vogue Paris, 2000. 05, N. 807, p. 36.
- 30) Maurice Merleau-Ponty (1945). *op. cit.*, p. 124.
- 31) Régis Debray (1992). *Vie et mort de l'image*, *op. cit.*, p. 37.
- 32) Carl Gustav Jung (1964). *Man and his symbols*. Aldus Books London. 이부영 역. 인간과 무의식의 상징. 집문당, p. 18.
- 33) Maurice Merleau-Ponty (1945). *op. cit.*, p. 198.
- 34) Freud가 무의식의 이론에서 거론한 'Es'를 국내에서는 영어표기를 따라 'Id'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Jean Laplanche와 Jean-Bertrand Pontails(1967)의 정신분석사전(임진수 역)의 용어를 따랐다.
- 35) Jean Laplanche et Jean-Bertrand Pontails (1967). *op. cit.*, p. 276.
 욕동(慾動): Pulsion-인체로 하여금 어떤 목표로 향하게 하는 압력으로 되어 있는 역학적 과정으로 욕동의 원천은 육체적 긴장상태로 되어있고, 그 목표는 욕동의 원천을 지배하는 긴장상태를 없애는 것이며, 그 목표는 대상 속이나 대상을 통해 도달할 수 있다.
- 36) *ibid.*, pp. 74-75.
- 37) Groddeck Georg (1923). *Au fond de l'homme, cela* (Das Buch vom Es). Gallimard, 1963. Jean Laplanche et Jean-Bertrand Pontails(1967). *op. cit* 재인용, p. 77.
- 38) *ibid.*, p. 75.
- 39) Sigmund Freud (1915-1917). *Psychoanalysis*. 민회식 역 (2001). 프로이트 정신분석. 정민미디어, p. 285.
- 40) Jean Laplanche et Jean-Bertrand Pontails (1967). *op. cit.*, p. 118.
- 41) *ibid.*, p. 119.
- 42) Jacques Lacan (1958-1959). *op. cit.*, p. 14.
- 43) *ibid.*, p. 72, p. 267.
- 44) Henri Bergson (1889). *Essai sur les données immédiates de la conscience*. Paris Alcan: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들에 관한 시론(Bergson의 생애와 철학, 그리고 시론) 최화 역 (2001). 아카넷, p. 330.
- 45) Jacques Lacan (1958-1959). *op. cit.*, p. 15.
- 46) 코디춰 (2006). 20세기 문화 지형도. 안그라픽스, p. 140.
- 47) Jacques Lacan (1958-1959). *op. cit.*, p. 20.
- 48) *ibid.*, p. 31.
- 49) *ibid.*, p. 35.
- 50) Maurice Merleau-Ponty (1945). *op. cit.*, p. 158.
- 51) 조광제 (2004). 앞의 책, p. 75.
- 52) Sigmund Freud (1915-1917). *Psychoanalysis*. *op. cit.*, p. 164.
- 53) 조광제 (2004). 앞의 책, pp. 75-76.
- 54) 위의 책, p. 77.
- 55) Vogue Paris (2000. 2). N.804, pp. 124-125.
- 56) 현실기능-현체의 순간과 상황에서 현실에 적응하는 작용으로, 다른 세계를 지각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를 실현하고 있는 것. Maurice Merleau-Ponty (1945). *op. cit.*, p. 695.
- 57) Régis Debray (1992). *Vie et mort de l'image*, *op. cit.*, p. 44.
- 58) Henri Bergson (1889). *op. cit.*, p. 282.
- 59) *ibid.*, p. 281.
- 60) *ibid.*, p. 282.
- 61) Régis Debray (1992). *op. cit.*, p. 46.
- 62) an. an 2007. 5. N.87. p. 291.
- 63) *ibid.* 2007. 7. p. 248.
- 64) an. an. 2007. 7. N.89. pp. 200-201.
- 65) Vogue Paris (2000. 5). N.807, pp. 2-3.
- 66) Maurice Merleau-Ponty (1945). *op. cit.*, p. 694.
- 67) Maurice Merleau-Ponty (1945). *op. cit.*, p. 695.
- 68) Vogue Paris (2000. 8). N.809, pp. 52-53.
- 69) *ibid.*, 2000. 11. N.812. p. 123.
- 70) Sylvie Guillem (2000. 2). *ibid.* N.804, p. 184.
- 71) Paule Ka, Hackett (2007. 7). *ibid.*, N.808, pp. 146-147.
- 72) *ibid.*, 2000. 11. N.812. p. 65.
- 73) *ibid.*, 2000. 10. N.811. p. 127.
- 74) an. an. 2007. 7. N.89. p. 164.
- 75) *ibid.* 2007. 8. N.90. p. 149.
- 76) Henri Bergson (1889). *op. cit.*, p. 331.
- 77) 1948 촬영. Vogue Paris. 2000. 11. N.812, p. 201.
- 78) "Décor à corps", *ibid.*, 2000. 5. N.807, p. 150.
- 79) 조선일보 (2007. 10. 11). B13. 오종찬 객원기자.
- 80) H-C Collection. Mode et Mode N.340 p. 117.